

방송 현장에서 본 국어교육의 필요성

민 경 옥*

“사랑의 매도”

저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1년 반 동안 황정민 아나운서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방송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10분에 황정민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FM 대행진에서 ‘간추린 모닝 뉴스’라는 코너를 진행했고, 매일 밤 8시에는 KBS 2TV에서 8시 뉴스를 또 황정민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공정민 아나운서를 거쳐서 지승현 아나운서와 호흡을 맞추고 있지만요. 그 황정민 아나운서가 여름 휴가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황정민 아나운서 대신에 당시 “공포의 쿵쿵따”로 한창 뜨고 있던 이지연 아나운서가 FM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지연 아나운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인기 방송 진행자 이상벽 씨의 딸이죠.

그날 아침 뉴스에 교육부에서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사랑의 매”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제가 질문을 “교육부에서 사랑의 매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요?”라고 질문을 써서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지연 아나운서가 그 질문이 적힌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사랑의 매도가 허용된다는 데 이게 무슨 얘기죠?”라고 물어봐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실수이겠거니, 하고 제가 살짝 웃으면서 답변을 했고, 저의 답변 도중에 “사랑의 매”라는 표

* KBS 아나운서

현을 몇 번 썼기 때문에 저는 그 실수가 바로잡혀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정신을 놓고 있던 이지연 아나운서는 제 답변이 끝난 뒤에 다시 한 번, “아, 사랑의 매도가 그래서 허용되는 거군요. 저는 그 사랑의 매도가 뭔가 했습니다.”라고 해서 결국 제가, “사랑의 매도”가 아닌 “사랑의 매”라고 고쳐줬습니다. 이지연 아나운서 대단합니다. 그쯤 되면 당황할 만도 한데, 바로, “아이, 오늘은 그냥 넘어가나 했더니, 또 사고를 쳤네요.” 하고 한 번 웃고 잘 넘어 가더군요.

방송인들은 이렇게 말로 해서 빚어지는 각종 사고의 가능성에 항상 떨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방송 사고를 막아주기 위해서, 적어도 자기가 방송에서 써서는 안 되는 말을 해서 사고가 났다는 걸 사후에라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 KBS에서는 국어 자문단을 보도국에 상주시키고 있고, 그 인연으로 저는 오늘 이런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영광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직접 뉴스를 만들고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방송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방송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국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 느낀 바를 함께 고민해볼까 합니다.

“김미현 선수가 봐서”

국어 자문단 선생님들이 우리의 잘못된 국어 사용을 바로잡아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어 자문단 선생님들은 매일 9시 뉴스의 원고와 방송 내용을 모니터해서 다음날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서류로 남겨 주십니다. 그런데 김미현 선수가 미국 LPGA에서 우승을 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김미현 선수가 버디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해서 결국 우승을 했는데요. 모니터 소견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김미현 선수가 보기를 해서 한 때 위기에 몰렸었다’라는 내용을 ‘김미현 선수가 봐서 한 때 위기에 몰렸었다’로 고쳐주신 겁니다. 봤으면 봤지 무슨 보기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었겠죠.

그 에피소드를 계기로 국어라는 게 국어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

니고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절실하게 느끼게 됐고요. 저희 KBS 9시 뉴스 편집부에서는 그 이후에 흑시국어 자문단 선생님들께서 그런 오류를 저지르시는 게 아닌가 하고 선생님들의 모니터 일지를 또 모니터 하고 있습니다.

자막 사고

방송국에는 자막으로 인해 빚어지는 방송 사고가 많습니다. 빈번하기도 하지만 기상천외한 게 많습니다. 언젠가 포항에서 고래 한 마리가 잡혔는데 5m짜리 고래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고래는 아니었지만, 그림도 있고 해서 단신으로 한 줄짜리 나갈만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자막은 그 기사를 세계적인 특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림과 함께 자막 처리된 내용은, “포항서 5mm 고래 잡혀” 였습니다. 5mm짜리 고래가 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만약에 있더라도 그 망망대해에서 그걸 운 좋게 잡아서 찍었다면 세계적인 특종이죠.

또 한 가지, 언젠가 충청도 양봉 농가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글썄, 정성껏 모아놓은 꿀을 밤 사이에 5통이나 훔쳐간 겁니다. 그것도 시골에서 지방 뉴스로, 단신 처리할 만한 사항이었죠. 그런데, 그 사소한 뉴스로 거의 해외토픽 감으로 둔갑을 했는데, 바로 그 자막 때문이었습니다. 자막은요, “한밤중에 꿀 5톤 훔쳐가” 였습니다. 하룻밤에 꿀 5톤을 훔쳐서 달아났다면 대단한 범죄 수법과 그 엄청난 꿀을 모은 그 마을의 양봉 기술 때문에 해외 토픽에도 나올만한 기사 아닙니까?

또 이런 방송 사고성 멘트도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전쟁 초기에 미국 워싱턴의 한 특파원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항공 모함이 발진하고, 전투기들도 쏜살같이 날아갔습니다.” 들을 때는 그럴 듯 했는데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니까 그 큰 비행기들이 화살 속도밖에 안 된다면 어디 날 수나 있겠습니까? 화살이 아무리 빠르기로서니 음속이야 되겠습니까? “전투기들이 박찬호의 광속구

같이 날아갔습니다”라고 안 했기에 천만 다행입니다.

다음 얘기는 또 제가 5시 뉴스 진행 피디를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리비아 공사, 테러 사건으로 북미 관계 영향 없을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 리비아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공사가, 테러 사건이 일어났지만 북한이 연루된 것도 아니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 혹은 그 대화 일정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나운서가 그 기사를 막 읽으려고 하는 순간에 방송될 자료 화면을 슬쩍 봤더니……. 엄청난 크기의 수로관을 싣고 리비아 사막을 줄줄이 달리는 우리 건설 회사들의 트럭들, 그 그림이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리비아에서 벌어지는 공사는 이번 테러에도 불구하고 영향 없이 잘 진행될 것이다, 이런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잘못 편집해 온 거죠. 와, 그거 빨리 발견해서 그림을 뺏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여러 사람 곡소리 날 뻔했습니다. 하긴 몇 년 전에는 청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큰손 장영자 씨가 병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게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자료 화면으로는 금은방에 진열된 각종 보석의 반짝거리는 화면이 계속 방송된 적도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좀 덜 아찔한 얘기긴 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사고들은 깜빡 정신을 놓는 바람에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기자를 포함해서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부족한 국어 실력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방송사 입사시험에서 국어 시험이 어렵고, 또 실기 테스트도 하고 하는 거죠. 다행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발음이 정확하다는 칭찬을 들었고, 웅변이나 연극 같이 말로 하는 과외 활동을 한 덕택에 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귀가 좋아서 남들의 발음의 잘잘못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데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런 언어 습관이 저를 현재의 위치에 올려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확한 발음과 언어 습관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래도 혹시 놓치는 고저장단이 있을까 봐 뉴스를 진행할 때는 항

상 사전을 옆에 놓고 의문이 드는 단어들을 다시 찾아보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지난 해 제 4회 KBS 바른 언어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틈이 나는 대로 나름대로 시청자들에게 바른 언어를 쓰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잘못된 언어 사용 때문에 시청자들의 항의를 듣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저의 단어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할머니라니?”

사람이 나이에 민감한 건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제가 정당에 출입할 때 얘긴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러지 마, 내가 이래 봐도 마음은 이팔청춘이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 나이가 그 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마치 나이를 먹은 양 그런 표현을 한 자체가 저에게는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실에서 일하는 여직원 한 명이 얼른 “에이, 민 기자님. 민 기자님이 청춘은 아니죠.”라고 말을 받더군요.

자기한테 한 말도 아닌데, 정말로 들어 넘길 수 없는 모함을 들은 듯이 중간에서 말을 고쳐주는 그 여직원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될 정도로 나이를 먹었나 하는 비참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그 여직원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떠오릅니다. 그 여직원 때문에 저는 한 순간에 이팔청춘 “오빠”가 아닌 “아저씨”로 변해 버렸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올해 연세가 66살이십니다.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시는 단어는 아직 발음이 불분명한 세 살짜리 제 아들이 당신을 부르는 ‘할머니’라는 소립니다. 그러신 제 어머니가 한 10년 전쯤에 길을 가는데 웬 아이가 당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쫓아가서 때려주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몹시 속상

해 하시더니 결국 그 날 머리를 까맣게 염색을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출입하던 정당의 그 미운 여직원을 생각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밋게 보였을까를 상상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광주시의 한 구멍 가게 주인을 14살짜리 소년이 살해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올해 연세가 60 되신 피해 여성을 달리 어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할머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4살짜리 남자 아이와 60살 되신 여성의 관계를 쉽게 구분하지는 생각에 ‘할머니’ 뺄 되는 분이라고 표현을 했던 건데, 그 다음날 청취자의 항의 메일을 받았습시다. 어머니가 60살이신데 그런 분을 할머니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뉴스에서 당신이 ‘할머니’ 나이대로 다뤄지는 바람에 혹시라도 여성으로서 충격을 받으셨을지도 모를 어머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려오고 눈물이 나려고 한다고 쓰셨습시다. 맞는 말씀이고 부디 그 어머님께는 제가 60살 드신 여성분을 할머니라고 표현하는 무례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긴 했지만, 저는 지금도 연세가 60이 되신 분을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할머니라고 불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라는 표현도 저를 괴롭히는 표현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존댓말에 사용되는 “요”라는 어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모든 말을 ‘했습니다’ 또는 ‘했습니다까’로 통일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는 존댓말이긴 하지만 남자로서 절도가 부족한 표현으로 교육을 받습시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요’라는 어미를 들으면 좀 덜 존중 받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요’로 말을 끝맺는 걸 들으면 습관적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기 마련이라는 얘기죠. 얼마 전에 김미현 선수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어느

공기업을 찾았는데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오는데 웬 직원 한 사람이 저를 보더니, “수고했어요.”라고 하더군요. 나이도 저보다 적어보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일단 그 ‘수고했다’라는 표현은 손윗사람에게는 써서는 안 되는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 손윗사람이냐고요? 손윗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일면식도 없던 제가 그 사람의 손아랫사람이 아닌 건 분명한 일이지요. 사회에서 처음 만나는 남남들은 일단 서로 존중을 해줘야 하는 게 상식이니까 다른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속으로 그렇게 화를 낼 거라는 생각을 했다면 많고 많은 표현 중에 그 ‘수고했다’는 표현을 ‘요’라는 어미에 실어서 보내지는 않았겠죠. 몇 년 전에 저랑 나이가 한 열 살쯤 차이가 나는 한 후배가 뉴스 진행을 마치고 나오는 저에게 “수고했어요.”라고 하기에, 그걸 지적했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존댓말’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따지더군요. 인사말을 들어도 기분이 나쁜 제 심정에 대한 설명을 그 때는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출근길에 라디오를 들었더니 저희 회사 아나운서실의 박경희 부장께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수고했다’는 표현과 관련한 이런 저런 설명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수고했다’는 표현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침 뉴스레터에 써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는 게 힘이고 모르면 불편하다, 오늘부터 ‘수고했다’라는 인사를 들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선배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인사할 때 유의하시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니다.

그 이후에 받은 메일

그런데 그 날 이후 저는 시청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진심어린 인사였다면, 깊은 뜻을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속 끓이는 것 또한 권위주의적인 습성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이란 문법

(도 중요하지만)보다는 분명 뜻이나 마음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수고하다’란 표현은 순수한 우리말인 듯 하고요. 손위나 손아래나 누구든지 쓰면 되는 말을 가지고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 말할 때는 ‘수고했네.’, ‘수고했어.’, ‘수고하게.’, ‘수고했다.’ 등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 말할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등으로 공대어를 쓰면 된 것이지 그걸 트집잡고 불쾌해 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 사고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표현하신 대로 ‘애쓰셨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질름발이 표현이 아닐까요?”

‘수고했다’는 표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 분들한테 저는 권위주의적인 습성을 가진 사람으로 매도 되고, 또 별 일도 아닌 걸 트집잡고 불쾌해 함으로써 사고 방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질타를 당했습니다. ‘수고했다’와 관련된 저의 지적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저는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런 느낌 없이 평생을 써오던 표현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일종의 부당함 같은 것을 그 분들의 이메일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국어교육의 아쉬운 점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어교육이 잘 돼야 한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저는 국어를 좋아하고, 국어 공부를 잘했다고 느끼면서도 방송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국어교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1) 장단음에 대하여

장단음에 대한 교육입니다. 물론 눈, 말, 밤 같이 순 우리말 가운데

길고 짧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기억은 있습니다만, 정(鄭)과 정(丁), 연(延)과 연(研) 같이 완전히 발음구조상 다른 식으로 발음을 해야 하는 ‘음가(音價)’에 대해서는 대학까지 졸업하면서 배운 기억이 전혀 없는 게 이상합니다. 다만 저는 말씀 드렸던 저의 좋은 청력으로 ‘영감’이라는 단어를 써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억은 갖고 있습니다. ‘영’도 아니고 ‘이응’도 아닌 이상한 발음을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들어주신 표음 문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언어가 대표적인 표음 문자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점도 찍히지 않은 상태에서 당나귀 정(鄭) 씨와 고무래 정(丁) 씨를 긴 정과 짧은 정으로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순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똑같은 ‘정’을 서로 다른 음가로 읽어야 한다는 걸 한자를 배우지 않는 세대에게 어떻게 이해 시켜야 하는지도 하나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외래어 표기법에 대하여

쏟아져 들어오는 외래어와 외국어의 표기와 발음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us’는 영어로 ‘버스’지만, 일본어로는 ‘바수’로 발음해야 한다는 일본어 강사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어가 일본에 들어와서 외래어가 됐으니까 일본말을 할 때는 일본식으로 발음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것에 큰 신경을 쓰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ㅡ’ 모음이 빠진 ‘bus’로 발음을 하든 우리 식으로 ‘버스’라고 발음을 하든 별 신경을 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news’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리포트 뒤에 모든 기자들이 ‘KBS news / njus/’라고 영어식 발음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케이비에스 뉴스/nju su/ 민경욱입니다.”라고 발음하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말은 국적이 없는 말로 변해 가겠죠.

우리에게는 없는 /f/와 /v/ 발음도 문젠입니다. 우리로는 그걸 쓸 방도가

없으니까 외래어라면 우리의 ‘표’으로 쓰고 /표/로 발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ax’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어니까, 실제 영어식 발음은 /fax/라도 우리말로로는 ‘팩스’라고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v/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결국 이런 문제를 갖고 아나운서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와는 생각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곤 했습니다.

3) 중국어 표기 유감

외래어와 관련해서 중국의 지명과 인명을 그들의 발음대로 읽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합니다. 고등학교 때 대만에 있는 자매 결연 학교의 초청을 받아서 대만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쪽 학교 선생님의 딸 아이가 저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해서 지도에서 찾아서 알려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은 과거에 자신들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었고, 그 수도는 ‘한청’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도는 서울이지만, 그 사람들은 서울의 옛날 명칭인 ‘한성’을 그들의 발음대로 아직도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강택민 중국 국가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장쩌민’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뉴스를 들으면서 이상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유로 중국의 모든 인명과 지명을 중국식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중국 사람들이 서울을 ‘한청’이라고 부르는 걸 모르는 한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동양의 한중일 3국은 한자 문화권입니다. 말이 안 통하면 필담을 나눌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온 한자에 대한 독자적인 발음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 포기하고 그들의 발음을 좇아간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강택민’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강 씨고 ‘연못 택(澤)’자와 ‘백성 민(民)’자를 쓴다는 걸 알고 그 이름에 담긴 뜻을 알 수 있지만 ‘장쩌민’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멀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중국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우리 발음으로 ‘장쩌민’이라고 한다고 그걸 알

아들을까요? 사성을 무시한 채 ‘장쩌민’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발음을 듣고 자기를 부른다고 알아듣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들은 저 ‘민경옥’을 ‘민경옥’ 대신 ‘민깡쉬’라고 부릅니다. 저는 제 이름이 ‘민경옥’으로 불리는 걸 더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네 글로 돼 있는 ‘閔庚旭’이라는 이름을 자신들의 발음인 ‘민깡쉬’가 아닌 ‘민경옥’이라고 불러줄까요? 그렇지않을 겁니다.

4) 국문법 적용 좀더 엄격해져야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을 같고 담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국어학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과 사랑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말을 지킴에 있어서 좀더 고집을 갖고 원칙을 세우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발음 중에 ‘외’의 발음이 독일어의 ‘오 우를라우트’와 똑같은 발음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음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발음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면 그런 노력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보도국에서 그 발음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자문단 선생님 한 분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웨’자와 혼용해서 쓰니까 그냥 쉽게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외’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건 칭찬을 해 줘야 하는 일이지, 막아야 하는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나 [효과]나에 대한 시비도, 둘 다 쓸 수 있다는 정도의 타협을 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좋다고 판정을 내리고 그런 쪽으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한다면 우리가 외국어와 사이버 세상의 잘못된 언어 습관의 홍수 속에서 좋은 우리말을 더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방송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잘못된 언어 습관을 사전에 바로 잡는 의미에서 가요를 작사하는 작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노래방 기계의 잘못된 자막에 대해서도 시정 작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록>

방송 현장에서 본 국어교육의 필요성

민 경 욱

본 연구는 방송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방송 사고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 느낀 바를 함께 고민해 보는 글이다. 방송국에서 뉴스를 직접 만들로 작성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각종 자막 사고나 시청자의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어교육의 실천적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국어의 장단음 문제,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 중국어 표기의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상 언어 생활 안에서 문법의 적용이 좀더 엄격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방송 현장이라는 특정 영역 안에서의 언어 사용 양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짚어봄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하겠다.

【핵심어】 국어교육, 방송 현장, 방송 언어

<Abstract>

A study on the necess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rough analyzing language uses in broadcasting center

Min, Kyeong-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various language uses in broadcasting center and then to put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Language-use in TV program should be very accurate and precise because it can greatly affect ordinary language uses in everyday life. However, most language uses in media are neither accurate nor appropriate.

After analyzing many cases, it can be possible to give ideas for ‘what a media language should be.’ After all, it should be grammatically ‘correct’. Especially issues about a long/short sound, transcription of foreign language. should be examined considerably.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Broadcasting system, Media Language